음경 휘는 음경만곡증, 수술 한번으로 해결

글 _ 이웅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50대 중반의 W씨는 3개월 전 목욕을 하던 중 우연히 음경에 단단히 만져지는 멍울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기능도 모양도 만족하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곧 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음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휘어지고 발기력이 저하되자 당황하여 병원을 찾았다.

프랑스 외과의사의 이름을 딴 '페이로니병'은 45세에서 60세의 중년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 병태 생리는 발기구조를 싸고 있는 단단한 백막에 반흔조직인 탄력성이 없는 조직이 생겨나서 발기될 때 이 부분의 팽창이 줄게 되어 음경이 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페이로니병의 원인은 '개인별로 어떤 소인이 있을 때 손상이 동반되면 발생한다'는 가설이 유력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는 백인에게 많고 황인종과 흑인종에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음경만곡증 환자의 성기능을 검사한 결과 약 30%는 발기부전이 동반되고 국소 주사치료와 약물치료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여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완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치료에 실패할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모양과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선천성 음경만곡증은 페이로니병보다는 드물며, 성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요도해면체의 형성부전이 선천성 음경만곡증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도 선천적인 문제로 기형적인 만곡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통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청소년이 다소간의 만곡증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선천적인 음경만곡증은 만곡의 정도가 심하면 수술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음경만곡증 환자는 아랫쪽으로 당겨지는 색대 때문에 아래로 심하게 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1회의 수술로 오랫동안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높은 진단적 가치를 지닌 이중초음파촬영술을 이용하면 정확한 음경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을 알아내고, 동시에 도플러 검사를 통해 음경혈류의 지표들을 평가하여 발기력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치료 지침을 삼을 수 있다.

음경만곡증은 그 증상이 환자 자신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 면담을 하거나 진료실을 찾지 못하고 중년의 경우는 수개월 동안,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몇 년간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된다. 그러므로 음경만곡증이 있는 경우 선천적이건 이차적으로 발생된 페이로니병이건 드러내 놓기 힘든 당황스러운 병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찰을 받아 음경의 이상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어 적합한 약물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